

2016년 1학기 포스테키안

서평 공모전 당선작 전시



심사평

김민정 (인문사회학부 교수)

이번 서평 공모전의 응모작 중 1,2차 심사를 거친 27편의 서평은 그 수준이 비교적 고른 편이었고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었기에 우열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산(1등), 민지우(2등), 최가은(2등) 씨의 서평은 (물론 최종 평가시에는 필자의 소속과 이름을 가린 채 평가했음을 밝힌다) 책의 내용에 대한 소개 및 느낌과 생각, 그리고 책의 의의 등으로 구성되는 서평의 필수요건을 균형 있게 갖추었을 뿐 아니라, 글쓰기 면에서도 기본적인 표현력을 겸비한 우수한 글이었다. 나아가 이들 세 편의 당선작은 책의 선정이라는 측면과 글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장점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었다.

잠시 이번 공모전의 최종 심사를 맡으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을 밝히자면, 응모자들이 책의 선정에 있어 익숙한 주제를 다룬, 막힘없이 쉽고 편하게 잘 읽히는, 소위 ‘힐링’을 위한 책이나 ‘자기계발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책이 어렵다거나 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읽기를 지레 포기하는 독자들이 많다. 그런데 이때 어렵다는 느낌은, 저자가 보여주려는 낯선 세계에 대해 거부감이 들거나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읽기 쉽고 편한 책이란 독자에게 익숙한 세계를 보여주거나, 저자와 독자의 생각이 그만큼 닮았다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다. 따라서 평소에 주로 이런 책을 골라 읽는 독자라면, 책을 읽은 후 그(녀)의 자기정체성은 한층 견고해지고 자기중심성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 세 편 of 당선작은 각각 ‘역사’와 ‘인간’과 ‘성차’와 관련한 기존의 사회적 통념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 책을 선택하여 진지하게 읽어

낸 소중한 결과물이라 하겠다. 먼저 [이강산 씨의 서평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참전자이자 희생자였지만 그 이름과 얼굴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200여 명의 여성들을 저자가 인터뷰한 책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공감어린 시선으로 읽어내고 자기성찰적인 태도로 글을 써내려간 점이 특히 돋보였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가장 논쟁적인 책이라 평가받고 있는 <사피엔스>를 읽고 쓴 [민지우 씨의 서평은](#), [여러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저자의 방대한 문제의식에도 결코 주눅들지 않는 필자의 주체적 관점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뒤바뀐 가상의 세계를 그려낸 책 <이갈리아의 딸들>에 대한 [최가은 씨의 서평은](#), [성차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반성적인 사유를 높이 살 만했다](#).

짐작하건대 이들 세 명의 당선자들은, 낯선 소재를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한 책을 성실하게 읽어냄으로써, 아마도 그 책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견고한 정체성에 균열을 내고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반성하게 하는 책의 힘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요즘 학생들로부터 주위에 책 읽는 친구들이 많아졌다거나 책 읽는 모임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한 직접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기도 한다. 일례로, 수업 시간에 맞춰 강의실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대부분의 학생들 틈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학생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고, 독서 모임을 만들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다. 인간의 성장에 책읽기가 미치는 ‘위대한’ 힘을 의심치 않는 1인으로서 포스텍의 이러한 변화가 더없이 반갑기만 하다. 좀더 욕심을 부리자면, 이러한 소중한 변화에 부응하여, 어떤 책을 선택할지, 책을 어떻게 읽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생각과 느낌을 말로 나누고 글로 남길 것인가에 대한 한층 내실 있는 교육이 동반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시안내

▶ 대상 : 서평 공모전 당선작 16편(응모 88편)

▶ 기간 : 2016. 6. 7(화) ~ 6. 29(수)

▶ 장소 : 박태준학술정보관 2층

▶ 온라인 : 도서관홈페이지 > 학술정보매거진 > 책소개

▶ 문의 : 학술정보팀 (T. 279-2546)

당선작 도서

▶ 최우수(1편) :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 우수(2편) : 이갈리아의 딸들, 사피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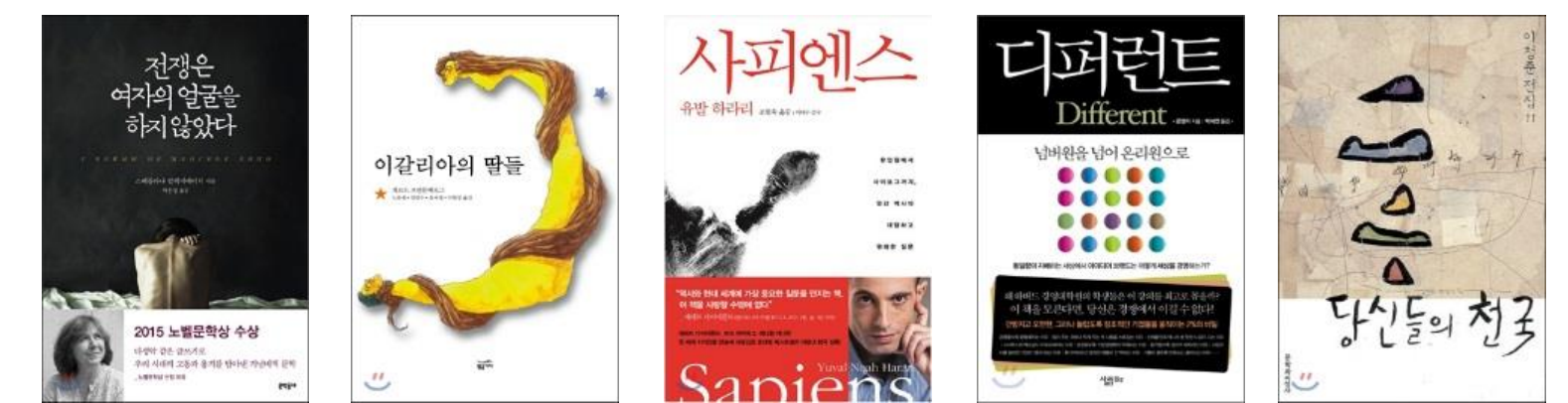
▶ 장려(4편) : 디퍼런트, 당신들의 천국, 분노하라,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 입선(9편) : 정의란 무엇인가, 고도를 기다리며, 철학 읽는 힘,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미움받을 용기, 오만과 편견, 드러커 100년의 철학, 분노하라, 드러커 100년의 철학, (법륜스님의) 행복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를 읽고

이강산, 신소재공학과

서평공모전
최우수



이 책을 선택한 이유

201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라는 이유에서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목소리 소설이라는 새로운 문학 장르를 개척했다는 점도 신선하게 다가왔다. 전쟁 참가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수필 형식으로 다큐멘터리 산문 형식의 책이다. 읽는 동안 소설과 같은 흡입력있는 새로운 필체에 매력에 빠져버렸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

우리의 기억은 결코 이상적인 도구가 아니다. 기억은 제멋대로인데다 변덕스럽다. 게다가 기억은 줄에 묶인 개처럼 시간이라는 사슬에 매여 있다. 우리는 현재로부터 과거를 바라본다. 현재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볼 수 가 없다. (34페이지)

텍스트, 텍스트, 사방이 텍스트다. 도시의 아파트들에서, 시골의 농가들에서, 거리에서, 기차 안에서, 나는 듣는다. 나는 점점 커다란 귀가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담으려는 커다란 귀, 나는 목소리를 ‘읽는다’. (23페이지)

서 평

“... 그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어요. 아직 아물지 않은 발간 그 상처 위로. 그때 알았어요. 그이도 내 마음과 같다는 걸. 그러자 나도 모르게 대답이 나와버렸죠. ‘그래요, 우리 결혼해요.’”

전쟁에 비행기 조종사로 참전했던 여성이 전쟁이 끝난 직후 동료에게 청혼을 받았던 당시를 회상하면 남긴 말이다. 전쟁기간 동안 여성으로서 자기의 몸은 죽어버렸다고 표현하던 그녀는 청혼보다 먼저 자기를 여자로 만들어주길 원했다. 전쟁의 참혹함에 깊이 잠겨있던 그녀에게 결혼은 현실로부터 너무 동떨어진 얘기였고, 청혼을 받았을 때 그녀는 그런 현실에 대해 화가 났다.

전쟁은 남자들의 전유물이다.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전쟁 영화나 전쟁을 소설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남자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전쟁을 미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전쟁 영화들이 전쟁 영웅들을 다뤘고, 그들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함을 가지게 하기 충분한 내용이었다. 얼마 전 개봉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귀향’ 또한 어린 소녀들을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희생된 존재로 그렸지, 여자들의 전쟁을 다룬 영화는 아니었다. 적어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전쟁에 참전한 여자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전쟁은 그저 고통과 참혹함, 잔인함 정도의 상징성을 가지는 하나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을 겪은 세대에게 듣는 전쟁 이야기는 그날의 참혹함을 보여주어 연민의 감정을 갖게 해주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기는 힘든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보여주는 전쟁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전쟁이라는 프레임에 가둬진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간 작은 사람들의 역사는 조금 더 내 가슴에 가깝게 다가오며 연민의 감정 그 이상을 느끼게 한다.

작가는 전쟁에 참가했던 수많은 여성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서면으로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 서사적인 전쟁을 기록하려는 목적이 아닌 개개인의 감정의 역사를 쓰려는 목적으로 인터뷰를 했다.

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생생하게 남아내기 위한 노력은 그대로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해진다. 책을 읽다 보면 그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수많은 사람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사람마다 전쟁은 모두 다른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전쟁 당시 위생병으로 복무했던 여성에게는 수술대가 전쟁대였고, 취사병에게는 전쟁 후 돌아오는 병사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던 순간이 전쟁으로 기억된다. 물론 준비한 식사량만큼 돌아오지 못하는 병사들도 많았을 것이다. 자기 삶의 위상이나 자기에게 닥친 사건을 통해 전쟁을 바라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쟁을 서로 다른 기억으로 남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전쟁은 종전되었지만 그들의 인생 안에서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대다수가 남성인 전쟁의 틈바구니 안에서 전쟁을 견뎌 낸 여성들의 목소리는, 여성뿐 만 아니라 남성에게 전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기 충분하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자신이 겪은 전쟁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해오던 그녀들이 40년이란 시간 끝에 풀어낸 그 목소리에는 정말 강한 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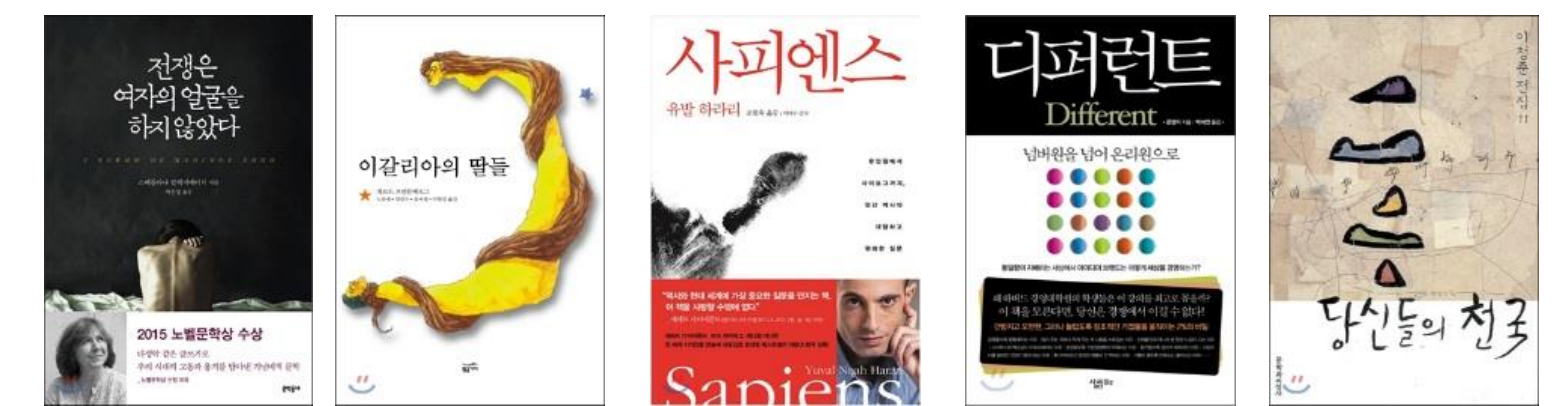
그녀들의 기억을 온전히, 그리고 최대한 생생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 작가와 힘겹게 자신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낸 여성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승리라는 달콤한 함정에 속아 전쟁의 참혹함까지 무마하려던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전쟁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책이라고 하고 싶다.

도서명 :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저자 :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 박은정(역)
출판사향 : 문학동네, 2013
도서관 청구기호 : [D810.W7 .A5313 2015](#)



“이갈리아의 딸들” 을 읽고 최가은, 생명과학과

서평공모전
우수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책 제목이 나의 호기심을 끌었다. 줄거리를 찾아보기 이전에는 한 집안의 딸들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실은 이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였다. ‘이갈리아의 딸들’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바뀐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이야기였으며, 이러한 줄거리는 나로 하여금 더욱 이 책을 읽고 싶도록 만들었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대성장 시대에 맨움들을 다루었던 방식은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이갈리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그 시대의 기준으로 역사적 시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맨움들이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그저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도 같은 존재였다.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근대적 신념은 대성장 시대의 이갈리아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녀들은 틀림없이 자신들의 사회는 앞선 시대에 비해 진보된 사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성장 시대 전에 있었던 황금 시대에는 맨움들이 불필요하고 해로운 존재라고 여겨졌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들 중 약 십퍼센트만이 살아남았다. 불행히도 우리는 황금 시대의 사회적 조건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190쪽)

서 평

‘이갈리아의 딸들’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바뀐 이야기를 그린 책이다. 여성은 ‘움’, 남성은 ‘맨움’이라고 칭해지며, 일반적으로 사람을 칭할 때는 ‘움’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여성은 밖에서 일을 하여 돈을 벌며, 남성은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

을 한다. 남성들의 최종 목표는 부유하고 멋진 여성을 만나 ‘부성보호’를 받는 것이며, ‘부성보호’를 받지 못한 남성은 노총각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된다. 이처럼, 남성은 여성에게 귀속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만의 꿈을 가질 수가 없다. 여성과 남성이 하는 일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성보호’를 받는 순간부터 남성은 오직 가사에만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자신만의 꿈을 펼쳐나가고 싶어하는 한 청년, ‘페트로니우스’가 등장한다. 페트로니우스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하며, 남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인 이 사회에 대해 의문과 반감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 이러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으며, 그들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씩 물들어가 변화의 싹을 틔우는 듯 했다.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작가의 ‘상상력’과 ‘섬세한 묘사’ 때문이었다. 한 번쯤 여성이 남성보다 우세한 세상을 상상해본 적은 있었지만, 이는 말 그대로 막연한 상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바뀐 사회적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남성들은 자신을 치장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머리를 길게 기르고 치마를 입고 다녔다. 그들은 일정 나이가 지나면 성기를 가리는 속옷을 착용해야만 했으며, 키가 작고 뚱뚱한 남성이 미의 기준이 되었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키가 크고 몸집이 우람했으며, 사회 고위직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남성이 여성에게 겁탈을 당하거나 취미생활로 바느질, 또는 십자수를 하는 등 다양한 상황들이 책에서 묘사되었다. 책을 읽어나갈수록 작가의 세세한 묘사에 매료되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바뀐 세상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기에 너무나도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배경의 설정 중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갈리아의 사람들이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우세하다’라고 믿는 것이었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남성이 신체적으로 더욱 강한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갈리아 사람들은 여성이 강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는 이갈리아의 여성들이 의도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약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통해 몸집을 키우도록 해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하게 되었으며, 이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사회에 더욱 힘을 얻게 해주었다.

이 책을 통해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페트로니우스를 포함한 그의 동료들은 남성이 억압받는 사회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여성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학교에서 집안일과 요리하는 법, 바느질에 대한 것만 배웠을 뿐, 땅을 가는 법과 농사를 하는 방법 등 살아가는 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농사를 배운 적이 없었고, 자신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우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갈리아에서는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며, 오히려 남성이 농사를 배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는 일이었다. 하지만, 실제 사회를 봐도 알 수 있듯, 남자가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농사를 하는 데에 더 유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갈리아에서는 불가능했다. 이는 모두 사회적 인식과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갈리아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억압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약하다는 인식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어놓았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받는 교육자체가 달랐으며, 그들은 성별이라는 이름 하에 명백하게 구분되어야만 했다.

과연 현재 사회와 같은 인식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 페트로니우스와 그의 동료들이 사회적 억압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사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우리는 어떠한가? 사회적 인식, 또는 편견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억압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아무도 모르게 본인을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볼게끔 만든다.

- 도서명 : 이갈리아의 딸들
- 저자 : 게르트 브란트베르그/노옥재 외 (역)
- 출판사 : 황금가지, 1996
- 도서관 청구기호 : PT8175.B74 .E52 1996



“사피엔스(Sapiens)” 를 읽고 민지우, 화학공학과

서평공모전
우수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작년부터 인문사회학에 관심이 생겨 겨울에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를 읽었다. 인류의 기원부터 출발하여 현재 인류의 문명이 왜 이러한 구조를 띠게 되었는지를 역사의 흐름에 맞추어 분석한 책이다. 작년에 출간된 ‘사피엔스’는 ‘총, 균, 쇠’의 저자로부터 찬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존경하는 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기도 한 책이었다. 미국인인 ‘총, 균, 쇠’의 저자와 달리 아랍계 사학자의 관점에서 분석한 역사는 어떨지 궁금하기도 했고, 상대적으로 출간된 지 오래 된 ‘총, 균, 쇠’보다 현대적일 내용도 기대가 되었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p.342)

서 평

인간을 연구한다는 것과 인류를 연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학자들은 인간은 개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인류는 집단의 시각에서 접근한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인류는 역사라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을 때 의미가 생긴다. 돌고래나 사자처럼 지구상에 오래 존재한 생명체는 많지만 인류를 제외하고 역사가 있는 종이 있느냐 하면 아니다. 역사가 있다는 것은 문명이 흘러 왔다는 것이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선함의 연속이다. 이미 수많은 학자에 의해 연구되고 대중에게 전달되었던 지식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끌었던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첫 번째는 인류와 동물의 차이, 두 번째는 농업 혁명의 비판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현대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부터 기술하기 시작한다. 흔히 사람들은 인간의 진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저지르지만, 실제로는 동시대에 여러 종의 인간이 존재했다고 한다.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종을 멸종시켰는지, 다른 종이 자체적으로 멸종했는지는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은 현시대의 인류의 입장에서 알 수 없는 일이다. 저자는 신기하게도 동시대에 멸종한 네안데르탈인은 힘이 세고 뇌가 더 큰 존재였다고 말하며, 약한 사피엔스가 끝까지 살아남아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한다. 그 이유들은 사피엔스와 멸종한 인간 종, 지구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다른 생명체들을 구분한다. 인류와 다른 동물의 차이점을 생각해 본 적은 많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립 보행이나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 거대한 뇌 크기 등 보편적인 사실 외에는 알 수가 없었다. 저자는 오직 호모 사피엔스만이 허구를 신봉한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모든 체계는 다 거짓이다. 우리가 만 원짜리 지폐를 평범한 A4 종이와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지폐의 가치를 믿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도 모두 허구적인 개념이다. 이것은 사피엔스의 능력이다. 저자는 가장 먼저 등장한 허구적인 존재는 ‘신’의 개념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공통된 허구적인 가치를 믿는 사피엔스는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최대 집단의 크기를 뛰어 넘는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였고, 그로부터 문명이 발생했다. 두 번째, 농업 혁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농업에서 그치지 않고 나 자신에게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점을 제시했다.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농업 혁명이 긍정적인 변화였느냐에서 출발한 질문은 아니라는 결론으로 끝난다. 수렵 채집을 한 사람들은 더 영양적으로 균형 잡히고 행복한 생활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농경의 시작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긍정적인 변화는 단 하나, 인구의 증가이다. 수렵 사회에서 유지할 수 있는 한 집단의 최고 크기가 150명이라고 한다. 농경을 하면서 인류에게 끼친 긍정적인 영향은 단 하나, 인구의 증가이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현대 사회의 중국과 인도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또 인구란 즉 생물학적으로 개체 수와 일맥상통하여 한 종족의 발전을 뜻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농업 혁명이 가져온 인구의 증가가 사회를 급격히 발전시켰다고 믿는다. 하지만, 대체 발전이 무엇이기예? 집단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체 수가 많은 건 이로운 일이다. 하지만 개인의 관점에서 개체의 수가 중요한가? 저자가 던진 이 질문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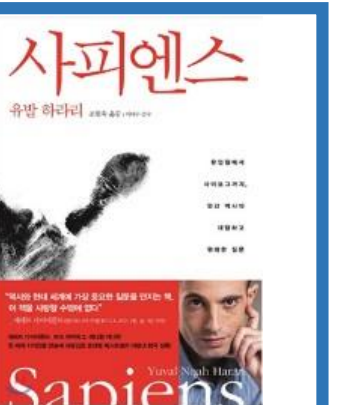
내가 평소에 느끼고 있던 의문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개인의 행복은 개인의 것이다. 사회가 아무리 문명화 되고 몸이 편안해졌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농업 혁명은 그 당시의 인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함으로써 인구의 증가를 가져다 주었지만(물론 저자는 여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지만, 굳이 짚고 넘어가지 않겠다)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수렵 생활이 더 행복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농업의 노예가 되어 돌이킬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저자가 농업 혁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과학 기술은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현대인들에게 몸의 편안함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하도 새로운 기술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 대중은 더 이상 새로움에 동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않으면 의아해한다.

현대인들은 이미 충분히 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고 있고, 과거에 높은 사망률을 차지하던 치명적인 질병들의 치료법도 가지고 있다. 30시간이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갈 수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메신저를 보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평균 수명 150세를 꿈꿀 뿐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길 원한다. 60억 인구도 옛말이다. 인간의 개체 수는 증가하다 못해 머지 않아 100억을 넘어설 수도 있다. 산업화는 언제까지 가속될까? 항상 역사에는 한 시대의 시작과 끝이 존재했다. 인류가 아닌 개체는 멸종으로 그들의 시대를 마무리했으며, 인류는 고대, 중세 등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열었다. 영원할 것 같던 그리스 신화는 흘러가는 이야기가 되었으며 몇 천년을 지배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동설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은 지동설에 밀려 후대의 비웃음을 샀다.

무서운 속도로 가속되고 있는 산업화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선불리 가정할 수 없다. 역사란 후대가 과거를 기록하는 행위이다. 현대인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이 시대의 끝이 어떻게 기록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현 시대의 흐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일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든다.

도서명 : 사피엔스(Sapiens)
저자 : 유발 하리리 / 조현욱(역)
출판사 : 김영사, 2015
도서관 청구기호 : [CB113.H4 .H3713 2015](#)



“디퍼런트(Different)” 를 읽고 김기웅, 기계공학과

서평공모전
장려

서 평

오늘날 기업들은 점점 ‘차별화의 대가’가 아니라 ‘모방의 대가’가 되어가고 있다. 더욱더 비관적인 것은, 자신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미묘한 차이들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나머지, 끊임없이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별거벗은 임금님 혼자 자신이 멋진 옷을 입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 담긴 생각들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 것이다. 그녀의 학생과 동료들이 증언하듯이 문영미는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사람 중 하나다. 그녀의 책은 당신의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적인 가정들을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찾도록 영감을 줄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이 책은 내가 지금까지 읽은 경영서 중 최고의 책이다. 제목은 심플하다.

디퍼런스도 아니고 디퍼런트. 개별상품 카테고리 안에서 수많은 제품이 경쟁하는 가운데 어떻게 남들과의 차별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담고 있다. 아마도 수업을 케이스스터디 형식으로 진행했음인지 책 뒷편에 따로 실린 아이디어 브랜드 사례연구 부분또한 인상적이었는데 책에서 언급한 브랜드 케이스에 대해 저자의 생각을 다시한번 정리해놓은 부분이라고 보면 될것 같다.

디퍼런트화(化)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시판이 허용되지 않았었던 생수시장을 보았다. 미국의 생수 브랜드는 마치 세포분열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수많은 브랜드가 난립해 있다. 그중에서도 보스(VOSS)라는 생수브랜드와 피지(FIJI)는 제각기 얼마나 멀리 떨어진 오지에서 물을 길어왔는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케팅 기법이 소비자들의 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저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인 소니의 아이보사례도 지금은 사업을 접긴 했지만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분명 로봇 강아지였음에도 로봇으로 포지셔닝하지 않고 애완동물로 포지셔닝하여 사람들의 최신 로봇에 대한 기대를 무반응 혹은 실망에 대한 관용으로 바꾸어놓았다는 사실.

이는 같은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소비자들의 머리 속에 어떻게 자리잡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을 극명하게 나타내주었던 사례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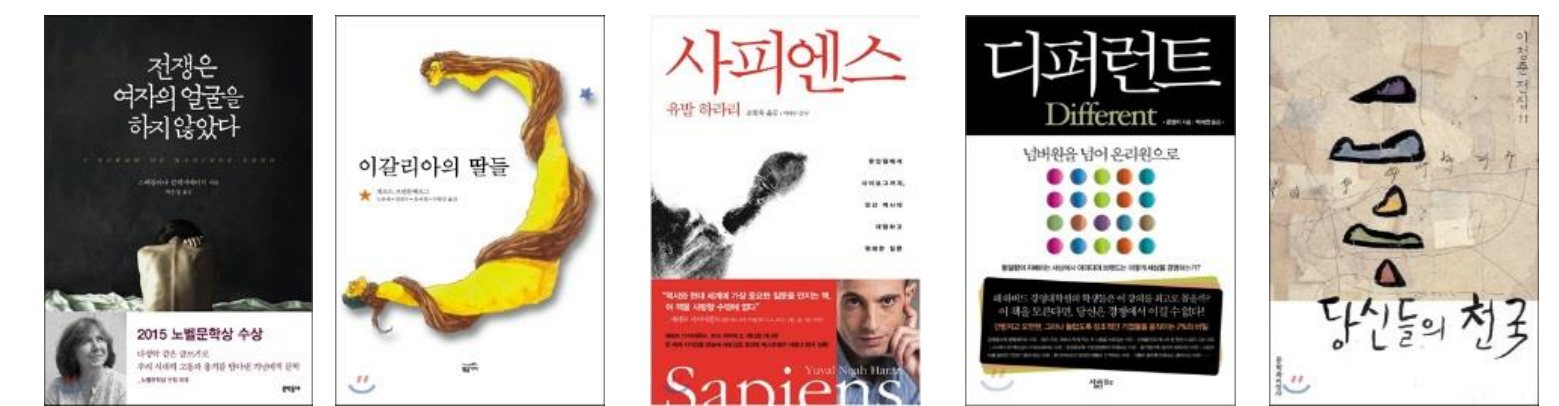
만약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방향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그저 평범한 존재로 추락시키고 있다면? 하버드 경영대학원 역사상 첫 한국인 종신교수이자,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교수’상을 연이어 수상하기도 한 문영미 교수는 이 책에서 경쟁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놓는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든 기업들이 똑같아지고 있으며 남들과 비슷한 전략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가 시장, 브랜드, 소비자의 심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반면에 경쟁 무리에서 벗어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들의 ‘다른’ 아이디어가 어떻게 ‘다른’ 세상을 만드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후발주자가 어떻게 1등 기업을 뒤집고, 오래된 기업이 어떻게 잃어버린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돈을 퍼부어도 외면하던 소비자를 어떻게 스스로 찾아오게끔 만드는지를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보여주는 책이었다.



📖 도서명 : 디퍼런트(Different)
📖 저자 : 문영미 / 박세연 (역)
📖 출판사향 : 살림, 2011
📖 도서관 청구기호 : [HF5415 .문64 2011](#)



“당신들의 천국” 을 읽고 최진혁, 신소재공학과

서평공모전
장려

이 책을 선택한 이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소록도로 봉사활동을 갈 기회가 생겼다.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섬으로, 과거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그 곳으로 이주하였다. 당시 정상인들의 멸시와 핍박 때문에 병이 나은 후에도 물으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환자들이 아직도 소록도에서 살고 있다. 소록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 계신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을 보고 한센병이 환자의 몸은 물론 마음까지 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를 반갑게 맞이하시는 그 표정 안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쫓기듯 소록도로 이주하셨던 그 당시 악몽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지식이 없던 나는 직접 겪지 못한 일이라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느끼지 못했다. 학교로 돌아온 나는 그 때의 상황과 관련된 책을 읽고 싶었고, 그 책이 바로 ‘당신들의 천국’이다. 고등학교 때 읽으려 마음 먹었으나 그렇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 이 수업을 통해 읽을 기회가 생겼고, 난 주저 없이 이 책을 선정했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

p. 156: ‘섬 안에 시설이 한 가지씩 늘어갈 때마다 그만큼 섬 전체가 천국에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p. 339: ‘... 이 우리 문둥이들의 것으로 남아 있는 한 오래오래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할 단 하나의 사랑의 동상으로 말이야..’

서 평

이 이야기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행해진 소록도 주민들의 오마도 간척 사업을 배경으로 했다. 실제 사건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냈기 때문에 그 당시 소록도 주민들을 비롯한 병원장 조백헌 대령, 그리고 다른 주요 인물들과의 갈등이나 심정 변화가 사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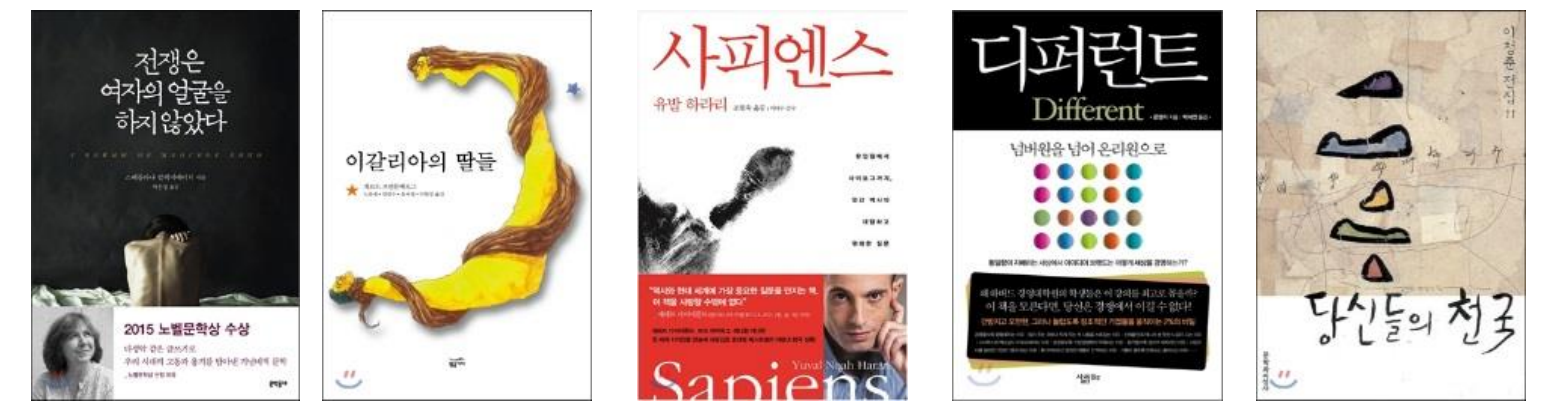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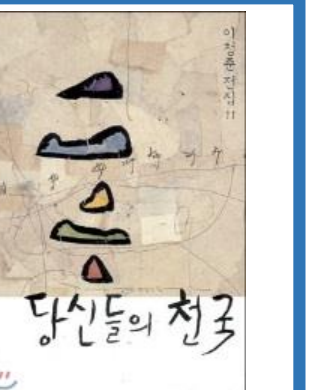
으로 묘사되어 있다. 조백헌 원장이 부임하기 전 병원장을 지냈던 많은 인물들은 하나 같이 소록도를 한센병 환자들의 낙원, ‘한센병 환자들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일본인 출신 주정수 전 원장의 첫 부임 연설에서 소록도 주민들은 크나큰 감동을 받았고, 자신들의 낙원을 위해 자신들이 먼저 발 벗고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주정수 전 원장의 첫 취지는 이상적이었을지 몰라도, 권력을 지닌 사람이 그렇듯 그는 권력욕과 과시욕을 버리지 못했다. 바르고 적절하게 힘을 행사해야 할 곳에 하지 못했고, 결국 그 힘은 첫 취지를 잊은 채 온전히 소록도 주민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소록도 주민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 소록도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즉 조정수 전 원장은 자신을 칭송하기 위한 ‘동상’을 마음에 지녔고, 결국엔 소록도 주민들을 희생하여 자신의 동상을 건설하기에 이른다.

위와 같은 아픔을 딛고 조백헌 원장이 소록도에 새로운 낙원을 건설하기엔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소록도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2년이란 시간을 보냈고, 오마도 간척 사업 시작도 전에 많은 소록도 주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 속에 주정수 전 원장처럼 ‘동상’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그는 소록도 주민들과 함께 자연에 대항하는 3년간의 싸움을 시작했다. 간척 사업 도중에도 소록도 주민들과의 갈등, 그 사업을 채가려는 물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후반부에 조 원장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동상’과의 끊임 없는 갈등이 있었다. 특히 자신의 마음 속 ‘동상’과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한 번 자신을 다잡았다. 한센병 환자들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들을 위해 간척 사업을 했지만, 그는 사랑으로써 그들을 감싸려 했다. 결국 그 사업이 민간업체로 넘어가기 전 조 원장은 소록도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장로회 대표 황희백 노인은 그의 마음 속에 ‘사랑의 동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린다. 이 장면을 통해 아무리 사람의 마음 속에 불신, 배반의 기운이 있다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선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불사해야 한다. 자신이 진정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자신의 마음 속에 이기심, 불신과 같은 ‘동상’이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 채찍질 과정이 물론 모질 수 있고, 왜 자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의구심이 드는 순간이 분명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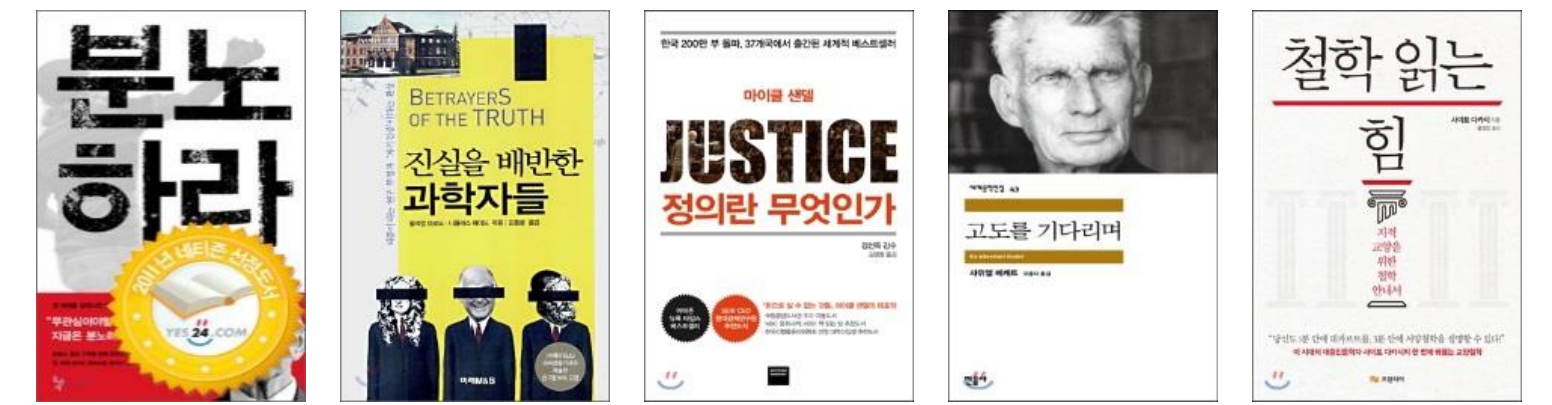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그 의구심을 충분히 보상할 만큼 값질 것이다. 여기서 고등학교 때와 다른 대학생활에서의 인간관계도 이와 똑같다고 느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욱 힘든 것이 인간관계라고 했다.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바라고 다가가는 것은 이 또한 자신의 마음 속에 또 다른 ‘동상’을 숨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이 ‘동상’을 버리고 ‘사랑의 동상’을 가지고 다가가면 더욱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자신이 ‘사랑의 동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자신이 동등한 관계임이 느껴졌을 때라고 생각한다.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오마도 간척 사업을 행했던 조 원장에게도 여전히 불신을 가지는 여러 소록도 주민들이 있었다. 그는 그 불신을 지우기 위해 소록도에서 쫓겨난 후에 원장이 아닌 주민이라는 신분으로 소록도에 다시 돌아온다. 즉, 그는 자신과 소록도 주민이 동등한 관계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던 것이다. 책에 따르면, 조 원장의 천국에는 아직 철조망, 즉 조 원장과 소록도 주민 사이의 철저한 상 하 관계, 가 존재했고, 많은 소록도 주민들이 그것을 느껴왔다. 자신이 생각하는 천국과 소록도 주민이 생각하는 천국이 대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철조망을 없애야 했다. 그 철조망을 없애는 행위가 바로 조 원장이 원장 직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록도 주민의 신분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랑하는 마음이 타인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자신이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문득 이 대목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했던 봉사활동 중에 내가 그 사람과 동등한 관계임을 생각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곰곰이 돌이켜보았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도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철조망, 정상인과 병력을 가진 환자, 이 쳐져 있었고, 나는 그것을 애써 무시했던 것 같다. 왜 그 분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어지지 못했는지 어렴풋이 느껴진다. 그것은 내가 그 분들과 동등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 또 사랑하는 마음이 타인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타인과 내가 동등한 자리에 위치한 상태로, 무엇을 바라지 않고 온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도서명 : 당신들의 천국
저자 : 이청준
출판사 : 문학과 지성사, 1986
도서관 청구기호 : PL959.55.이833 .당5 1986



“분노하라”를 읽고 유혜빈, 신소재공학과

서평공모전
장려



이 책을 선택한 이유

도서관2층 '추천도서 코너'에서 이 책을 처음 발견하였다. 처음 책을 보고 끌린 이유는, '분노하라'라는 강렬한 책 제목 때문이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분노해야 하는 것인지 호기심이 생겨 이 책을 집어 들었다.

책 뒤편에는 이 책을 권하는 유명인들의 추천 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신영복 교수의 추천사도 있었다. 신 교수는, '프랑스보다 분노할 것이 훨씬 더 많은 우리들에게 그의 외침은 정수리에 올려놓은 얼음조각처럼 가슴 서늘한 깨달음이 된다. 분노의 표적을 잃은 채 부당한 증오에 함몰해 있는 자신을 깨닫고 진정 분노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국 교수는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평화적 봉기를 일으키자며, 최악의 태도는 무관심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추천 글들을 읽고 나니, 평소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지, 사회 문제들에 무감각하고 무심했던 나의 태도를 개선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읽어야만 할 것 같았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

“어느 누구라도 인간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부디 그의 편을 들어주고, 그가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 보편적인 권리, 기본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부디 분노하라고”: (16쪽)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분노의 동기를 갖기 바란다. 이건 소중한 일이다. 내가 나치즘에 분노했듯이 여러분이 뭔가에 분노한다면, 그 때 우리는 힘 있는 투사, 참여하는 투사가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역사의 흐름에 합류하게 되며, 역사의 이 도도한 흐름은 우리들 각자의 노력에 힘입어 면면히 이어질 것이다.”: (15쪽)

“창조, 그것은 저항이며 저항, 그것은 창조다”: (39쪽)

서 평

‘분노하라’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을 고른 것은 평소 과제와 전공 공부로 바쁘게 지내느라 내가 속한 사회에 무감각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반성이었다. 곧 4월 13일 총선인데, 생애 첫 투표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도 이 책을 읽게 된 동기 중 하나였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스테판 에셀’이다. 그는 90세가 넘는 프랑스의 노인으로, 과거에 드골 장군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에 합류하여 레지스탕스의 일원으로 활약한 적이 있다. 그는 유대인 강제수용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는 외교관이 되었다. 1948년 유엔 세계 인권 선언문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고, 퇴직 후에도 사회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부끄럽게도 나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레지스탕스’라는 것에 대해 잘 몰랐다.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레지스탕스는 동사 ‘저항하다(resist)’의 명사형이다. 프랑스 전국 레지스탕스 평의회는 1943년 파리에서 결성되었으며, 주요 역할은 프랑스 해방에 대비하여 정부의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핵심 내용은 노동자들이 어떠한 경우에 처하게 되더라도 생존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퇴직연금제도였다. 또한 대표적인 생산수단들을 국유화 시켰으며, 부를 정당하게 분배하는 경제적인 민주주의 수립을 권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독립을 주장하였고, 모든 프랑스의 어린이가 가장 발전된 교육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저자인 스테판 에셀은 젊은 세대들에게 ‘분노하라’고 말한다. 레지스탕스 운동을 일으킨 것은 결국 분노의 힘이었고, 훼손된 레지스탕스 운동의 유산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90세가 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회를 걱정한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 특히 나는 그의 주장 중 ‘무관심은 최악의 태도’라는 것에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반성을 하였다. 나 따위가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내 앞가림이나 잘 하자는 태도는 분노할 수 있는 힘, 참여의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 이는 결국 더 큰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하였다. 먼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정치권력이나 시장의 횡포, 불법 등을 면밀히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면 용기를 가지고 비판하기로 다짐하였다. 보고도 모른 척 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묵인한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 성향이 ‘중도’, ‘중립’에 가까

워서,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비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대편과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그 쪽도 이야기 해 보면 이해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항상 믿어왔다. 이러한 입장도 분명 여러 장점이 있다. 하지만 조국 교수는 ‘사람의 값과 직결되는 가치와 정책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기계적 중립은 없다’라며 내 태도를 비판하였다. 나 역시 그의 생각에 동의하며, 앞으로는 정당하게 분노하고 실천 함으로서 세상 바꾸기에 작게나마 기여할 것이다. 또한 꼭 투표에 참여하여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저자가 주장한 내용들 중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내용은 바로 비폭력에 관한 것이었다. 스테판 에셀은 비폭력이야말로 폭력을 멈추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에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예전부터 뉴스에서는 어느 나라가 폭력을 행사하면, 그 폭력을 막기 위해 더 큰 위협을 가해 사태를 잠재웠기 때문이다. 비폭력 운동은 너무나 약해서, 폭력을 막을 힘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폭력은 결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며, 우리는 비폭력의 희망을 선택해야 한다. 마틴 루터 킹과 넬슨 만델라의 말씀처럼 우리는 비폭력을 통해 현대 사회의 수많은 갈등들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인권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여기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떠올려 보면, 나에게도 분노하던 순간이 있었다. 2년 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 때 나는 분명한 분노의 감정을 경험했다. 또한 종종 인터넷 신문 기사를 읽으며 부당하다는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이 정도로만 안 된다는 것을 느낀다. 조금 더 분노해야 할 필요가 있고, 분노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이렇게 느낀 분노의 감정을 건설적인 행동으로 연결시키고 실행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이 책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짧은 책이었지만 강렬했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책이다.

도서명 : 분노하라
저자 : 스테판 에셀 / 임희근 (역)
출판사향 : 돌베개, 2011
도서관 청구기호 : D843 .H47 2011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을 읽고 윤지우, 창의IT융합공학과

서평공모전
장려

이 책을 선택한 이유

평소 '진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었음.

기억하고 싶은 문장

화학물질들이 일정 비율로 서로 결합한다는 법칙은 그런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규칙만을 진술할 뿐이다. 설명을 위해서는 '이론(Theory)'이라는 좀더 깊은 수준의 구조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p.25)

프린키피아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도 남을 만큼 교묘하게 고의적으로 조작한 수치의 정확도 때문이다. (p.41) (중략)

두 심사 집단이 동일한 연구 지원서에 대해 매긴 등급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 그 이유에 대해 콜 형제는 무엇이 바람직한 과학인지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p.148)

프로 마술사들은 일반인보다 과학자들을 속이기가 더 쉽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과학자가 자신의 객관성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하는 데서 비롯된다. (p.158)

서 평

이 책을 읽기 전에, 나는 수업 과제로 사이비 과학을 대표하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의 저자 에모토 마세루의 논문이 왜 과학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글을 쓰고 있었다. 나는 그 글에서 해당 논문이 과학적 방법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가며 글을 반박하고 있었다. 물론 그런 반박을 할 수 있었던 내적 기반은 '진짜 과학'은 적법한 과학적 방법론을 따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 부정행위의 예시를 들 때, 그 유명한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이 나올 거라곤 예상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도, 뉴턴도,

갈릴레이도, 베르누이도, 돌턴도, 멘델도 데이터를 조작했으리라고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와우. 고등학교 시절 실험 과목을 하던 친구들이 실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원래 데이터는 만드는 거지'라고 했던 기억이 났다. 당시 우리들은 실험 결과에 상관 없이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농담이었지만, 정말 연구부정이 흔하지 않은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정말 많고도 많은 연구부정행위 사례들의 소개와, 그 이유는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연의 문제, 그리고 과학계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사례들을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연구라면, 차라리 과학과 인류의 빠른 발전을 위해 약간의 데이터 보정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닐까? 만약, 내가 대학원에 갔는데 교수님이, '야, 데이터 보정 같은 거 하지 않으면 우리 연구실 예산 못 따. 다들 그래.'라고 한다면, 그냥 수긍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으며, 리처드 파인만의 'Cargo Cult Science'를 주제로 하는 유명한 강연이 생각이 많이 났다. 새로운 실험을 하기 전에 있어서, 그 전의 실험을 다시 해 보는 검증실험이 정말 중요한 실험자로써의 덕목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과학자 사회 내에서 검증실험을 장려하고, 검증실험을 해 봄으로써 더 새롭고 나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림을 그려 본다면, 내가 너무 순진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무엇인가를 '느끼는' 것은 다르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책에서 얻은 가장 큰 의미는, '과학자도 인간이다'라는 명제를 '느낀 것'이라 생각한다. 앞의 '기억하고 싶은 문장' 들은 대부분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 준 문장들이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옳으리라 하고 생각하는 명제에 편향되게 실험을 조작하는 과학자들. 내가 속한 조직과 단체에서의 명예를 위해, 혹은 그 조직과 단체의 명예를 위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과학자들. 과연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처음 책을 읽을 때는 '연구부정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어휴,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사례들을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연구라면, 차라리 과학과 인류의 빠른 발전을 위해 약간의 데이터 보정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닐까? 만약, 내가 대학원에 갔는데 교수님이, '야, 데이터 보정 같은 거 하지 않으면 우리 연구실 예산 못 따. 다들 그래.'라고 한다면, 그냥 수긍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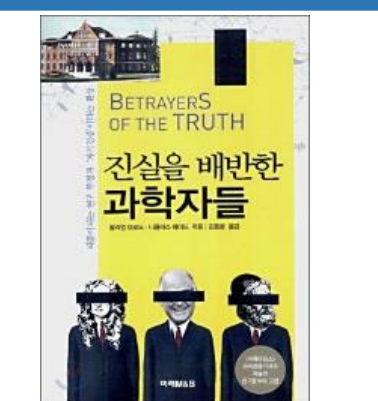
그래서,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하겠다. 과학자들도, 그 동료들도, 그리고 어쩌면 미래에 그 구성원이 될 나도, 모든 - 개인적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인 것을 포함해 -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리라. 연구부정을 만드는 제도적 문제가 빠르게 없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구부정을 저지르지, 사실 모르겠다. 단, 그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은 잊지 않으리라, 또 그에 대한 죄책감을 물어버리지는 않으리라 다짐한다. 다만 내가 순수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놓고도 연구부정행위를 보자마자 '멍청하게' 연구실을 뛰쳐 나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책의 마지막에는 모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례와 그 출처, 그리고 참고문헌의 목록이 약 20여 페이지에 걸쳐 적혀 있었다. 만약 이 책의 결론부에서 제시한 견해가 이미 다른 사람이 제시한 의견을 도용한 것이라면 그만한 코미디도 없겠다는 상상을 하며 책을 덮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도로 연결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 첫 삽을 뜨는 누군가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아니면, 그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천천히 진보해 나가거나. 잘못된 것이 천천히 고쳐져 나가는 것을 보기가 싫어서 첫 삽을 뜨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영웅이 되는 모습을 꿈꾼다면, 이는 엘리트주의적인, 더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중2병적인 것일까. 근래 들어 세상 만물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무엇이 맞고 틀린지, 애초에 맞고 틀린 것이 존재하는 하는지도 의문이다. 어서 빨리, 다같이,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 책의 저자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사회 전반의 '공개적인 윤리'가 생각하듯, 연구부정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그것이 패널티가 되지 않는 환경이 왔으면 좋겠다.



- 도서명 :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 저자 : 윌리엄 브로드, 니콜라스 웨이드 / 김동광 (역)
- 출판사항 : 미래M&B, 2007
- 도서관 청구기호 : Q172.5.F7 .B76 2007



포스테키안 서평 공모전 2016년 1학기

“정의란 무엇인가” 를 읽고
김남원, 단일게열

서평공모전
입선

서 평

“ 참여 정치를 통한 정의 구현”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 질문을 하게 된다.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 대부분 잠깐 생각하고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나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진정한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정치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사례, 정치 제도들을 통해 여러 정의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고 독자로 하여금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 책의 좋은 점은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안락사, 낙태, 소수집단우대정책, 동성혼 등 다양한 논쟁이 일어나는 사례를 통해 의견을 하나하나 정해보면서 책을 다 읽을 쯤, 각자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롤스, 칸트 등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상, 생각이 담겨있다. 주로 공리주의에 대한 입장,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입장, 공동선을 추구하는 입장 등이 있는데 각각의 입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다양한 입장 중에서 자유지상주의에 찬성하는 편이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선택이 존중될수록 생산이 증대되고 경제가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선택이 무시되면 일을 하기 싫어질 것이고 개개인의 행복이 감소할 것이다. 나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일을 할 때 책임감을 더 지게 된다.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보완으로 복지, 인간의 존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능력과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좋으나 자칫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최소복지 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틀릴 수 있다. 사실 어떠한 정의를 정하더라도 나는 이에 반박하는 사람이 꼭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사람들마다 살아온 배경, 가치관, 생각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생각은, 바로 참여정치를 통한 정의의 구현이다.

참여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한건 2014년 3월 초였다. 나는 종로구에서 고등학교 주변에 일어나는 불편사항, 고쳐야 할 점 등을 종로구청에 간단한 양식을 통해 메일로 보내는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로 올라가는 언덕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의 은행이 많이 떨어져 지나갈 때 은행이 많이 묻어 불편하다는 점을 메일로 보내게 되었다.

2014년 5월, 위의 활동을 통해 나는 종로구 청소년구정평가단으로서 2014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초청을 받았다. 나는 이에 관심이 생겨 ‘참여 참정 그리고, 참(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진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참여 정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참여’를 상당히 많이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참여가 많이 이루어 져야만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이에 많은 공감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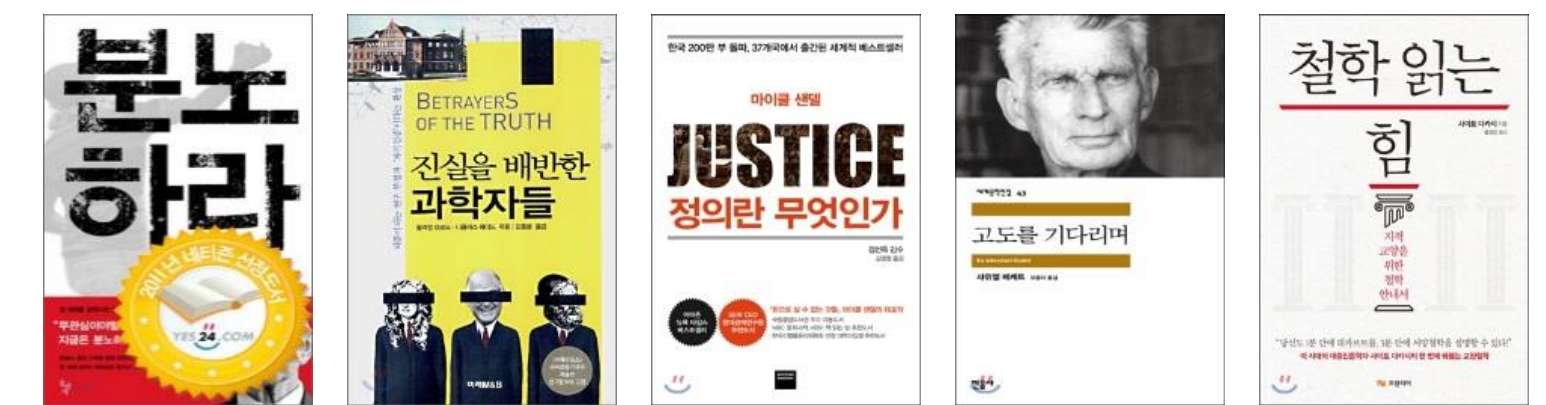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자신이 생각한 이 사회의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시민이라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참여 정치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의는 무엇인가’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한다는 점에서 좋은 책이다. 그러나 고민만 해서는 정의에 대한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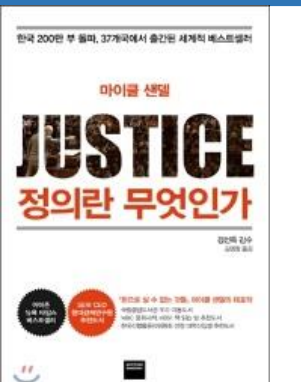
책에는 정의에 대해 생각한 것을 ‘표현하라’는 말이 없다. 사실 대부분의 시민이 사회의 문제점을 알리려고 하거나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투표 정도만 생각할 것이다. 물론 투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나도 올해 처음으로 총선 투표를 했다. 하지만, 나는 더 나아가 참여 정치를 통해 개개인이 생각한 정의와, 사회의 문제점을 표현해야만 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회가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다면, 이를 표현하자. 소수자우대정책에 불만이 있다면, 이를 표현하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 정치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개인의 힘은 약한 것이 아니다. 막강하다.

우리는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참여 정치를 통해,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도서명 : 정의란 무엇인가
📖 저자 : 마이클 샌델 / 이창신 (역)
📖 출판사 : 김영사 , 2010
📖 도서관 청구기호 : [JC578 .S25 2010](#)



포스테키안 서평 공모전 2016년 1학기

“고도를 기다리며” 를 읽고
김재현, 창의IT융합공학과

서평공모전
입선

서 평

에스트라공 : 그만 가자

블라디미르 : 가면 안 되지

에스트라공 : 왜?

블라디미르 : 고도를 기다려야지

에스트라공 : 참 그렇지

‘고도를 기다리며’는 위의 단순하면서도 많은 의미를 내포한 대사에서 볼 수 있듯이 말 그대로 고도를 기다리는 모습을 극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오랜 시간 동안 고도를 기다려 왔으며, 반복되는 나날을 시간을 죽이며 보내왔다. 매일 밤 고도를 기다리는 인내심에 한계가 왔을 때 어김없이 전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소년이 나타나 고도가 오늘은 오지 못하고 반드시 내일은 올 것이라는 전갈을 남기고 사라진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반복되며 고도는 끝내 오겠다는 말만을 늘 남기며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두 인물을 이토록 애타게 기다리게 하며 시간을 죽이기 위해 어이없는 행동을 하게끔 하는 이 고도는 과연 누구일까?

작가인 베케트조차 고도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지 않았기에 수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고도를 신이라 보는 이들도 있고 빵이라 보는 이들도 있으며 구원으로 간주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작가의 연보에 기초해서 조금 다른 해석을 해보고자 한다. ‘고도’는 인간의 나태함을 합리화하고자하는 핑계의 형상이며 생각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저 행운이 자신을 찾아오기만을 바라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상징이다.

사무엘 베케트가 이 연극의 기초를 다지고 집필 한 시기는 세계 2차 대전 때 이다. 그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전쟁당시 중립국 국민이라는 안정적인 신분을 활용해 프랑스에서 생활하며 레지스탕스의 활동을 돕고 본인은 은신처에 숨어서 집필 활동을 하며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왔다고 한다.

나는 여기서 작가가 전쟁 기간 동안 전쟁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기만 했으며 소극적인 행동 밖에 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싶다. 블라디미르는 이런 목적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작가의 모습을 투영한 인물이라 생각한다. 블라디미르는 본인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고도를 기다리는 것, 어찌 보면 더 큰 목적은 고도를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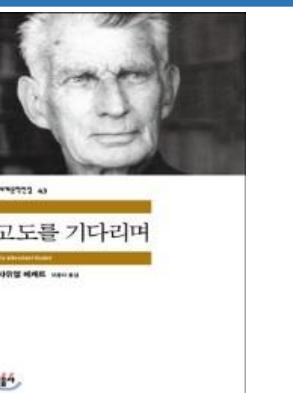
그는 본인의 입으로 온갖 혼돈이 찾아와도 본인에게 변함없는 한가지는 바로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라 말 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뚜렷한데도 어째서 고도를 직접 찾아 나설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걸까? 매일 밤 찾아오던 소년은 분명 고도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토록 고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다면 당연히 그 소년을 따라 가서라도 고도를 만나려 하지 않았을까? 블라디미르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고도에게 자신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하라는 말만을 남기며 소극적이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블라디미르는 오히려 이 무기력함의 연속을, 나태함의 연속을 더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고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태함을 원하는 것이고, 고도는 그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을 만났다는 얘기를 전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나날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칫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것을 염려해 본인이 확실히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을 확고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래도 에스트라공은 블라디미르보다는 한 수 위인 것 같다. 적어도 그는 본인의 현 사태에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고 있으며 이를 바꾸고 떠나고자 발버둥을 친다.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고도를 기다리는데 사용했기에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떠나야겠다는 말만을 하며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고도를 향한 기다림이 습관화되어 블라디미르가 고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할 때는 ‘참 그렇지’ 하며 어김없이 수긍해버린다. 이를 통해 에스트라공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는 있지만 오랜 세월 지치고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습관화 되어 버려 변화를 시도하여도 일회성 행위에 그치는 성향을 보이는 것 같다. 고도가 위의 두 인물들에게 큰 의미가 있음은 자명해 보인다.

정말로 고도는 그들에게 성공을, 부와 명예, 자아성취,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있는 신과 같은 인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고도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그가 찾아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기다릴 뿐 먼저 찾아가지는 않는다. 즉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기만 하고 있다. 어쩌면, 고도가 직접 찾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소년을 보내는 것도 두 인물들한테 그만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본인을 찾아와 원하는 것을 찾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작가 사무엘 베케트 본인도, 2차 세계 대전 당시 직접 나서서 행동하지 않고 그저 본인의 은신처에 숨어 자기 할 일만 하며 전쟁이 끝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본인이 행동하지 않는 이유를 합리화 시켰던 것에 대한 반성, 부끄러움을 ‘고도를 기다리며’를 통해 보여주고 독자들에게 인간의 나태함의 힘과 그것이 습관화 되었을 때 나타는 무서움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도 같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그저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 두 인물과, 작가 사무엘 베케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나도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막상 실천하기를 계속해서 미룰 때가 많다. 그때마다 이것저것 시간의 문제, 용기의 문제, 돈의 문제, 학업의 문제를 들며 핑계를 둘러댔으며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많다. 나 역시 나만의 고도를 만들어 내어 내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상황을 즐기며 실재로 부딪치기 보다는 그저 어느 날 짜잔하며 내 앞에 덩그러니 나타나기만을 바랐던 것 같다. 장담하건데, 이일은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 씩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결국 마음에 한편에 걸터앉아 하염없이 각자 나름의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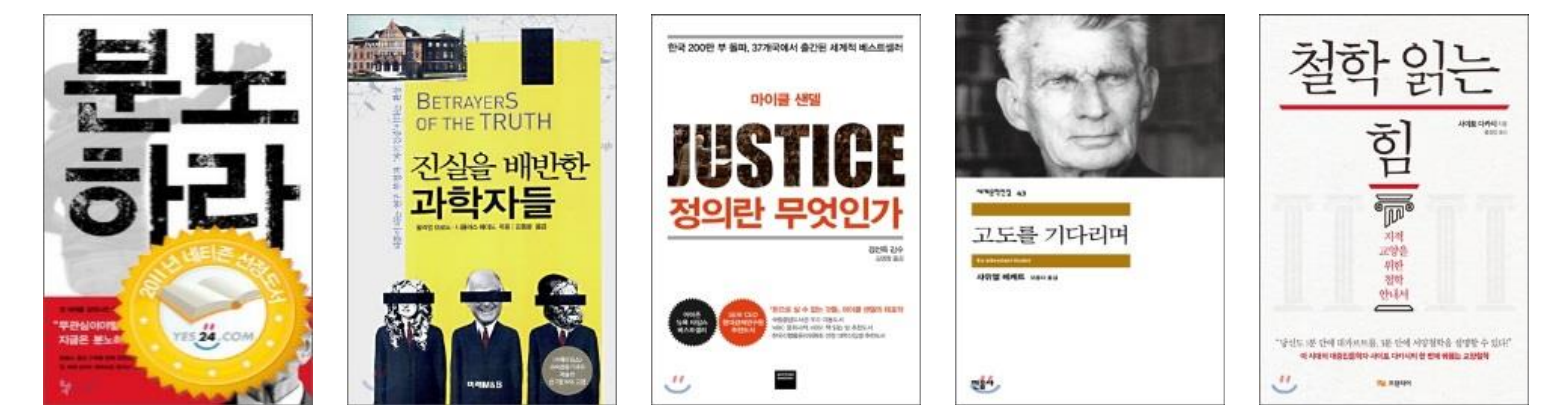
도서명 : 고도를 기다리며
저자 : 사무엘 베케트 / 오증자 (역)
출판사 : 민음사, 2000
도서관 청구기호 : [PN6065.K8 .세141 V.43](#)



포스테키안 서평 공모전 2016년 1학기

“철학 읽는 힘” 을 읽고 박광현, 수학과

서평공모전
입선



이 책을 선택한 이유

대학에 들어와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내가 겪는 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혼자 의미를 부여하면서 철학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다짐을 많이 했지만, 내가 찾은 책들은 생각보다 어려운 책이어서 쉽게 읽을 수 없었고 끝을 보지 못했다. 추천도서목록을 보다가 이 책의 제목을 보았고, 머리글을 읽어본 후 전반적인 철학의 흐름을 소개해준 책이란 걸 알게 되어서 선정하였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

"차라투스트라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에 홀로 선다. 그곳은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혹독한 장소지만, 내 자신의 주인은 나여야 하기에 강한 바람이 부는 산 위에 홀로 서서 그 바람을 맞아 고독해지라" 니체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인용해온 말인데, 내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와 맞아서, 기억이 오래 남는다.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신이 있다 한들 기죽지 말라는 맥에서 나온 말인데, 말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굳건함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p160)

서 평

앞서 밝혔듯이, 모든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행동의 원인을 찾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물음을 가진 뒤부터 철학에 관심이 생겼고, 철학에 대한 책을 읽고 싶었다. 가령, 수학을 배울 때도 수학의 이 학문은 어떻게, 어떤 이유로 생겨났고, 이 학문이 발전해서 수학의 어떤 부분이 바뀌거나 밝혀졌는지를 파악하고 배우면 좀 더 흥미가 끌리고, 이해가 쉬워 지는 부분이 있다.

그렇듯, 철학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나에게 이 책은 고대의 철학부터 현대의 철학까지의 흐름을 설명해주고,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 어떤 사상들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더 철학에 흥미를 가지고, 배우고 싶게 해준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껏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철학자들의 말들을 비로소 올바르게 파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는 말은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존재라는 말이 이성이라는 존재로서, 확고한 자립이 있다 즉 자립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나,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 는 세상의 허무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립심, 내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강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표현한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책의 전개상 책에 나오는 철학자들의 사상을 반론하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철학자가 이전의 사상을 비판하고, 자신의 사상을 주장하는 인과관계를 짚어주어서, 나도 자연스럽게 이 철학자의 사상은 어떤 허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와 같은 비판적인 사고로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책에서 소개한 소크라테스부터 마르크스까지 철학자 중 나의 마음에 드는 철학자를 몇 명 꼽을 수 있었고, 이 후로도 그 철학자들의 책들을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 철학자들은 칸트와 니체다. 물론,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사람은 시간과 뗄 수 없는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의 오래된 사상에 공감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으나, 세계를 설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한 철학자들에게 공감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좀 더 진취적이고, 반항적인 듯한 칸트와 니체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칸트의 사상의 뿌리는 대상과 인식의 전환인데, 대상이 있어야 대상을 인식한다는 보통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

에 따라, 대상의 의미가 바뀐다는 측면에서 인식이 대상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나는 주관적인 인식이 모두가 옳다고 하는 객관적인 대상의 모습보다 때론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칸트는 데카르트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고, 하지만 모두가 세상의 중심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진리를 대상<인식 이라는 간결한 식으로 나타내면서, 조용히 신의 목을 잘랐다고 한다. 너무 매력적인 말인 것 같다. 니체는 칸트처럼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초인이 되라고 말한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어떠한 역경이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마음가짐을 중요하다고 하면서 신의 존재를 내리쬘었다. 사실 책을 읽으며, 초엘리트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수한 인정을 받아온 니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반발심을 갖거나, 저런 사람이라서 그런 밝은 에너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등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나는 운이 좋게도(?) 그런 의심을 갖기보다 말 그대로의 강직함이, 니체의 사상이 마음에 들었다. 사실 철학을 알고 싶었지만, 접해본 적이 없어서, 난해하고 어려운 것 내지는 자신의 생각에 집중을 하고 결론을 내야 하는 학문이니, 비교적 어렵고 인간의 한계나 부조리함 등의 내용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책의 소제목 중의 하나는 "힘에의 의지를 갖고 자신의 긍정하라" 라는 마치 자기계발서적에 나올법한 내용도 있었다. 너무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철학에 더 흥미를 느끼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도움이 된 책인 것 같아 좋았고, 감사하다.

도서명 : 철학 읽는 힘 : 지적 교양을 위한 철학 안내서

저자 : 사이토 다카시 / 홍성민 (역)

출판사향 : 프런티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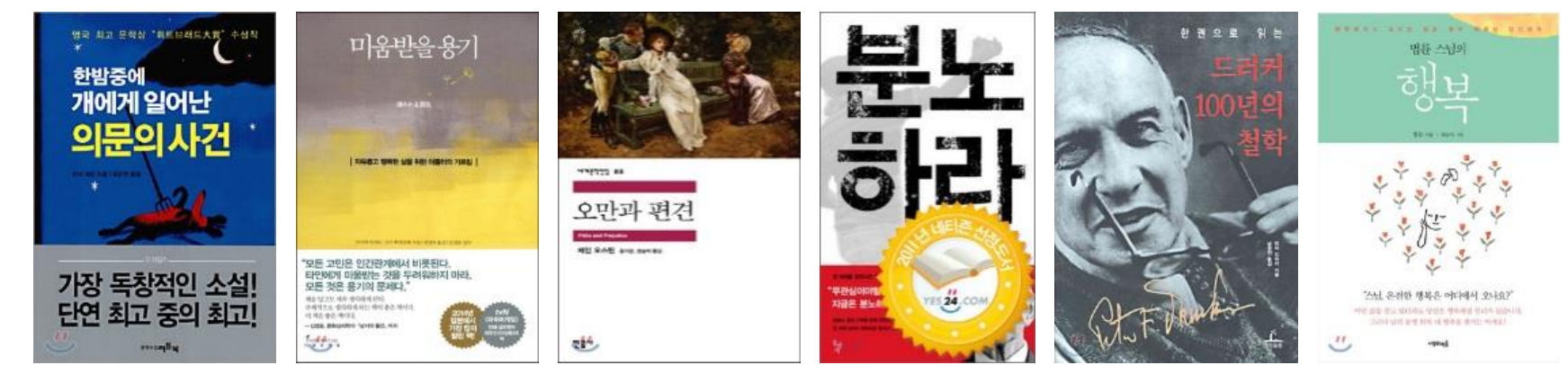
도서관 청구기호 : [BD21 .재27 2016](#)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을 읽고

이길운, 신소재공학과

서평공모전
입선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아이러니하게도 책에 대한 ‘스포일러’ 덕분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을 읽을 독자를 위해 자세한 줄거리는 밝히지 못하겠지만, 기존의 소설과는 다른 문체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 소년의 탐정이야기 정도라고 일러두겠다. 어찌보면 한 어린아이의 탐정 소설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듣고 나서야 이 소설에 매력을 느끼고 읽게 되었다. 이 ‘어린아이’의 ‘어린아이와 다른 관점’에서 모습을 바라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지 내심 궁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책의 이름은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으로, 내가 들은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더 관심이 갔고, 책을 선정하여 읽게 되었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

"(207쪽) 인간의 뇌가 컴퓨터와 다를 게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컴퓨터가 특별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스크린이 바뀌는 그 찰나에 꺼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항상 달의 관측되지 않는 표면, 블랙홀의 공간처럼,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중략)

(373쪽) 나는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 힘으로 런던까지 갔고, ‘누가 웰링턴을 죽였는가’라는 미스터리를 풀었으며, 엄마의 집을 찾아냈고, 게다가 용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책까지 썼다. 그 말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 평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인식이 가능한 만큼 생각하고 바라본다. 인식은 곧 경험으로 이어진다. 현대에서는 당연하게 관찰하는 세로의 미세구조를 옛날 사람들은 구경조차 하지 못하였고, 알래스카에만 살던 사람들은 적도 근처의 무더위를 간접적으로나마 상상해보는데 그칠 뿐이다.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기억하는 모습은 다르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상상으로나마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경험한 세계를 기반으로 펼쳐는 생각의 나라와 비교한다면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식과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의 한계이리라.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특별하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크리스토퍼 부운은 세상을 담담하게 풀어나간다. 수려한 수사 어구나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은 없다. 사실을 정밀하게 묘사할 뿐이다. 단지 보이는 그대로 설명할 뿐이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상상력으로 우리가 지나칠 법한 부분까지 이야기한다. 단지 다른 사람들의 은유적인 표현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다.

어찌 보면 자연을 바라보는 과학자의 눈과 비슷하다. 하지만 주인공은 노란색과 빨간색에 이상하리만큼 집착하고,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너무나도 싫어한다.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는’ 통상적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엄마가 죽었다는 질문에 담담하게 어떤 원인으로 죽었는지를 물어본다. 89쪽에 이르러서야 독자들은 이 주인공의 정체를 알 수 있다. 주인공은 ‘자폐아’이다.

그런데 이 주인공을 어딘가 불편한 ‘자폐아’라고 한정 짓기에는 지금까지 읽은 책 내용이 독자를 조금은 아리송하게 만든다. ‘자폐아’인지 몰랐을 때는 주인공을 ‘독특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단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아이’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다음 질문을 맞닥트리게 된다: ‘인식의 차이가 과연 정상적인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쓰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아니다. 세상을 좀 더 면밀히 바라보지만,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틀린’ 사람은 아니다. 이야기의 말미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정면으로 반박한다. ‘나는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중략) 그 말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373쪽, 문단 전체는 ‘기억하고 싶은 문장’ 참고)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지하는 사람은 무언가 하지 못할 것이라는 프레임(frame)이 생기는 것은 단지

우리와 같이 세상을 인지하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제기한 이야기처럼 그들이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이 우리와 다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수의 집단과는 다르다고 바라본다. 책 중에 주인공의 학교 동기가 ‘결국 너는 청소부나 하게 될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은연중에 이러한 사람들은 바라보는 시각을 표현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로 해석된다.

‘프레임’의 문제에서 한 발짝 벗어나, 주인공이 전하는 세계를 통해 우리의 세상을 다시 한 번 바라보자. 작가는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해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소한 변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음을 전달해준다.

‘컴퓨터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컴퓨터와 다른 점이 사실은 없다’는 주인공의 생각, ‘별자리라는 것이 단순히 별을 인식하는 방법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는 주인공의 고찰에서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 된다. 이 책에서 나오는 다양한 사실과 철학적 고찰은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모든 사실을 재고(再考)하게 해준다.

이 책을 통해 필자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인식의 차이를 기반으로 둔 프레임(frame)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고, 정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인식의 차이가 크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의 세상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인공은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보이는 사실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자 한다. 어떨 때는 세상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도 여러 가지 필터(filter)로 걸러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생각이 든다.

- 도서명 :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 저자 : 마크 해던 / 유은영 (역)
- 출판사향 : 문학수첩리틀북스, 2005
- 도서관 청구기호 : [PZ7.H1165 .C8 2005](#)



포스테키안 서평 공모전 2016년 1학기

“미움 받을 용기” 를 읽고
김태영, 신소재공학과

서평공모전
입선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이번 학기에 들어서 고민이 많아졌다. 3년동안 힘든 점 없이 다닌 학교지만, 요즘 들어 휴학, 공부, 인간관계 등에 관한 생각이 많다. 그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한다.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하고, 지금까지의 나를 후회하기도 했다. 과거의 나를 반성하면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라고 힘겹게 생각했지만, 점점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처음엔 이 책의 제목에서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이 책의 부제인 ‘행복한 삶’이 눈에 들어왔다. 앞뒤의 한줄평을 읽어보고, 추천의 말과 시작하며 부분을 읽어봤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할 지 갈피를 잡을 수 있었다. 이 책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아德勒의 심리학은 생각의 방식 자체를 바꾸어주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 가를 읽기 쉽게 제시해주어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바가 있는 책이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

아德勒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일세.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지.-p63

하지만 자신의 불행을 ‘특별’하기 위한 무기로 휘두르는 한 그 사람은 영원히 불행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네.-p103

건전한 열등감이란 타인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라네.-p105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자네의 인간관계는 한 순간에 달라질 걸세.-189

‘지금, 여기’에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 과거도 미래도 보이지 않게 되네. -p307

서 평

이 책은 아德勒의 심리학이 바탕이 된다. 철학자와 청년이 대화를 하며 아德勒의 심리학을 설명하고 있다. 아德勒의 견해를 들 때 중간중간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청년이 나 대신 철학자에게 반론을 하며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느낌이었다. 흥미진진한 대화를 읽다 보니, 더 이상 지루한 철학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아德勒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원인론이 아니라 목적론을 세상을 바라보라. 열등감을 활용하라. 과제를 분리하여 인생을 단순화 시켜라.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라. 이와 같이 이해시키기 어려운 내용을 잘 풀어나가고 있다. 실제로 몇 가지 방법의 제시는 지금 바로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이를테면, 타인의 과제는 나의 과제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은 실제로 인생을 해석하기 쉽게 만들어 준다.

그렇지만 이 책의 청년이 느끼는 바와 같이, 아德勒의 심리학은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이상적이고, 성인(聖人)이 아니고서야 이를 항상 적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철학자는 행복해지기 위해선 ‘타인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그에 대해 청년은 이렇게 묻는다. ‘타인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었는데, 배신을 당하면 슬픔의 감정은 어떻게 하는가? 과연 이것도 행복인가?’ 철학자는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네.’ 라고 말할 뿐이다. 인간은 상처받는 동물이다. 다치면 아파한다. 행복해지기 위해 신뢰를 주고자 하지만, 계속된 배신에도 신뢰를 주어야 하는가? 이와 같이 현재로선 몇 가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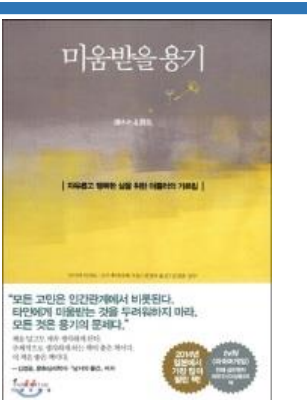
그럼에도 이 책은 나의 고민 중 많은 부분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즘 나의 가장 큰 고민은 인간관계이다. 학교생활 중 많은 부분을 학업에 열중하여 인간관계에 소홀했다는 것을 요즘에야 깨닫고 있다. 그러면서 후회하고 힘들어했다. 아德勒의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자체를 부정하고, 과거에 지배 받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한다. 즉,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고 한다. 객관적인 과거의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의 일을 후회하며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분명히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전부터 인문학 중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책을 몇 번 읽은 경험이 있다. 심리학을 잘 활용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심리학 책을 몇 권 읽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근본적인 심리학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깨달았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은 일시적일 뿐,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가가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다. 아德勒의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기도 한다. 책의 제목처럼 말이다. 어쩌면 나도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다. 아德勒의 심리학을 잘 곹씹으며 이제 용기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준비해야겠다. 더 나아가 미움받을 용기-사랑과 진정한 자립에 대한 아德勒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읽으며 아德勒의 심리학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해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 도서명 : 미움 받을 용기
📖 저자 :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 전경아 (역)
📖 출판사향 : 인플루엔셜, 2014
📖 도서관 청구기호 : [BF637.S4 .안14 2014](#)



“오만과 편견” 을 읽고 문준승, 기계공학과

서평공모전
입선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삶에서 직접적, 간접적인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스스로 해볼 수 없는 경험을 이렇게라도 간접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것에 큰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영화나 드라마 등 여타 문화생활을 즐길 때에도 작중의 주인공에게 자신을 투영하여 그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상상한다. 이런 가치관은 책을 선택할 때도 여실히 나타난다. 소설은 이런 바람을 이루어주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르다. 평소 소설을 즐겨 읽지만 고전을 접해본 적은 없기에 본 과목을 통해 고전을 읽어보고자 명작이라고 칭해지는 ‘오만과 편견’을 택했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

31p에서 이 책의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내용이 서술되고 있다. 오만과 허영심에 관련된 언급을 여자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하고 있으며 이 언급 자체가 개인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0-136p에서는 남자 주인공 다아시와 여자주인공 엘리자베스가 함께 춤을 추며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지만 다아시는 오만을 엘리자베스는 편견으로 서로를 대하며 서로를 비판한다. 293p에서는 엘리자베스가 가지고있던 편견이 완화되는 묘사를 스스로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심하게 하고 있으며 이 시점이 둘의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된다. 덕분에 독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전개를 예상해볼 수 있어서 즐겁다.

서 평

오만과 편견은 처음 접한 고전문학이었다. 현대 문학을 주로 읽어왔기에 고전 문학 특유의 화려하고 복잡한 문체에 익숙해지기가 여간 쉬운 것은 아니었다. 평소 긴 문장은 좋은 문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책의 앞부분에서는 쓸데없이 문장이 길어서 그저 읽기에 어려움만 더해지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페이지를 거듭할수록 특유의 문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때쯤 이야기의 흐름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려한 수식과 긴 문체는 주인공의 감정선을 상세하고 세밀하게 표현하기에 적합했으며 실제로 글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묘한 감정변화까지 직접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충분했다. 덕분에 직관적으로 주인공들의 감정선을 느낄 수 있었고 이야기에 더 깊게 빠질 수 있었다.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을 향한 심경 변화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하나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 여주인공은 의심이라는 것을 늘 당연하게 해왔다. 허나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 주인공에게 호감을 품는 것이 그저 남자의 집 하인의 평가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렇게 의심을 일삼던 주인공이 하인의 평가에는 크게 의구심을 품지 않은 것이 아직까지 의아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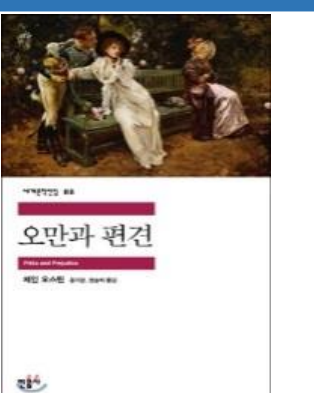
소설의 분위기는 상당히 밝고 가벼운 편이다. 내용은 과거 서양의 사교문화에 치중되어있으며,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남녀간의 사랑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또한 중간중간 당시 사교계의 바탕이 되던 현 시대에서는 비판 받아 마땅할 가치관 같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시 사교계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상적인 남성상과 이상적인 여성상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상당히 남녀의 역할을 나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가치관이다. 때문에 작가는 이를 바탕으로 남성이 원하는 여성상과 이에 수긍해버리는 여성 혹은 과도하게 남성에게 기대는 여성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잘못된 가치관과 그에 따른 영향을 풍자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다른 곳에 있다. 두 주인공은 각자의 단점인 다아시의 오만과 엘리자베스의 편견이라는 문제점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극복해나간다. 또한, 결말부에서 둘은 서로의 장단점으로 조화로운 부부가 되는데 이때 신분이나 재력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중에서는 신분에 맞는 인연에 관련된 주변인들의 생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작가는 아마 당시 사회에서 결혼에는 신분이 굉장히 중요시됐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비판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주인공은 마지막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차이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시 사회에 비해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가는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앞으로 사람들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표현했다.

고전 문학에서 현대와 사회적으로 많이 다르다. 그렇기에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책이 처음 출간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오만과 편견은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는 책의 내용이 아직까지 독자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과거 신분은 현재는 환경과 유사하며 여전히 사랑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이 책은 앞으로도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고전 명작으로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다.

오만과 편견으로 고전 문학의 매력적인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지인의 판단으로는 오만과 편견은 고전 문학을 처음 접할 때 읽기 좋은 편이라고 한다. 대화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묘사만으로 이루어진, 또는 표현이 너무 간접적이라 읽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이해하는 것 역시 상당히 어려운 고전 문학들이 세상에 즐비하다고 한다. 앞으로 고전 문학을 읽으면서 더 난해하고 어려운 도서를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서명 : 오만과 편견
저자 : 제인 오스틴 / 윤지관, 전승희 (역)
출판사향 : 민음사, 2003
도서관 청구기호 : [PN6065.K8 .세141 v.88](#)



포스테키안 서평 공모전 2016년 1학기

“분노하라”를 읽고 송인강, 전자전기공학과

서평공모전
입선

이 책을 선정한 이유

‘책 읽는 포스테키안’ 과목의 과제를 위하여 읽을 책을 찾던 중 ‘분노하라’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제목이 선동적이고, 또 근래에 선거 때문에 사회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의 자세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중이어서 스테판 에셀이라는 작가가 어떤 의도로 분노하라는 제목을 붙였는지 궁금해져서 이 책을 선정하였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

레지스탕스 운동의 백전노장이며 ‘자유 프랑스’의 투쟁 동력이었던 우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호소한다. 레지스탕스의 유산과 그 이상(理想)들을 부디 되살려달라고, 전파하라고.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 총대를 넘겨받으라. 분노하라!”고. -p.15

서 평

스테판 에셀은 프랑스 레지스탕스 출신의 작가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 나치에 의해 프랑스가 점령되자 이 점령에 항거하여 지하에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펼친 일원이다. 이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하다. 현실에 분노하고 항거하는 젊은이가 되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현실에서 분노하라는 말은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젊은이가 되라는 뜻이다.

스테판 에셀은 요즘 사회는 예전의 레지스탕스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한탄한다. 작가는 프랑스 혹은 유럽의 사회를 주로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겠지만 이 말은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여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율이 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이른바 ‘정치 불감증’에 걸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혹자는 노예제가 있던 시대나 세계 대전 중처럼 사회가 급박하게 변하는 중도 아니고 무난하게 사회가 굴러가는데 분노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 이 물음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답을한다. 여기에서 작가는 사회가 달라졌음을 인정한다. 작가가 젊은 시절에는 프랑스는 독일과 제 2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독일의 강점이라는 사실에 분노하고 행동하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2차 세계대전처럼 적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분노해야 될 대상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가 분노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이유는 사회는 금융 자본주의의 사회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어 소수의 금융 지주들이 사회를 뒤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손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사회의 여러 곳에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능동적으로 맞서 싸우라는 의미이다. 얼마 전 4.13 선거가 있었다. 예년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20년 전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현상은 젊은이들이 투표를 해서 집권 정당을 바꾸어 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음에 회의를 느끼고 투표일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인 투표를 스스로 포기하면 사회는 나아지지 않는다.

글쓴이는 우리에게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그는 우리가 이런 수동적인 불감증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불의한 행동을 꾀할 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을 원한다.

다만 그는 우리가 이런 수동적인 불감증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불의한 행동을 꾀할 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을 원한다.

이 책에는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연륜이 쌓인 그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젊은 시절 나치 치하에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면서 항거하는 불꽃 같은 저항 정신의 소유자인만큼 그는 사회는 부조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항거함으로서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예로 그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예를 들면서 세계가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의 현장을 묵인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나는 포스테키안도 이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비록 우리는 수도권에서 떨어진 포항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닦기에도 바쁘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의 유능한 인재가 되려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불의하다고 생각되면 주먹을 쥐고 일어나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부조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다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 더 나아진 사회에 살게 될 것이다.

도서명 : 분노하라
저자 : 스테판 에셀 / 임희근 (역)
출판사항 : 돌베개, 2011
도서관 청구기호 : [D843 .H47 2011](#)



포스테키안 서평 공모전 2016년 1학기

“(한권으로 읽는) 드러커 100년의 철학” 을 읽고
고은영, 기계공학과

서평공모전
입선

이 책을 선정한 이유

이번 학기에 이수 중인 과목에는 ‘경영학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처음 경영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라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듣고 있던 중 교수님이 계속해서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듣고 흥미가 있었고, 언젠가 그의 책을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추천 도서 목록에 드러커에 관한 책이 있는 것을 보고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

‘개인이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장수하고 오랫동안 활동할수록 이 필요는 더욱 커진다.

일상화된 하루하루가 기분 좋게 여겨질 때야말로 다른 일을 하도록 분발할 필요가 있다.

일을 바꾸고 진로를 정하는 것은 자신이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아는 것도 자신이며, 조직에 공헌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에게 높은 요구를 부과하는 것도 자신이다. 싫증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도 자신이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 또한 자신이다.’ (30page)

진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 문장은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선택 할까봐 걱정하고 결국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는 내게 잘못 선택했을 때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괜찮다는 용기를 주었다.

서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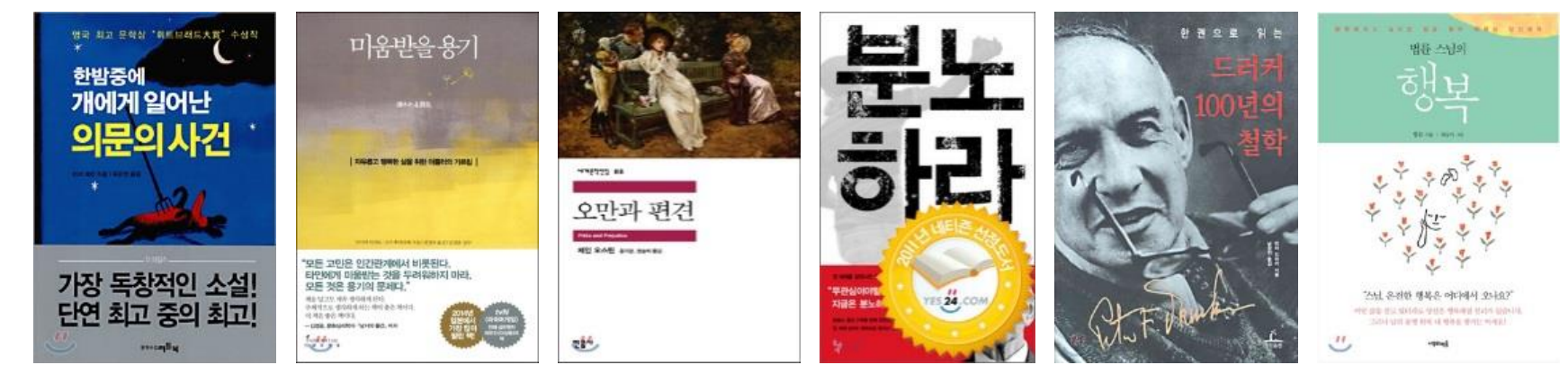
스테판 에셀은 프랑스 레지스탕스 출신의 작가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 나치에 의해 프랑스가 점령되자 이 점령에 항거하여

사실 나는 전형적인 공대생답게 인문학의 책들은 멀리해왔다. 나에게 인문학 책들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한 문장도 그 뜻을 이해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드러커의 철학에 관한 책을 읽기로 결정한 것은 큰 노력이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지루한 주제를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그의 철학을 소개시키는 이 책은 꽤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특히 경영 뿐 아니라 일에 대한 그의 철학을 담고 있는 부분은 여러가지 재미있는 생각들을 다루고 있었다. 오히려 경영에 대한 부분에서는 수업시간에 다뤘던 부분이 대부분이고 알게 접근하는 부분이 많아 인상 깊게 남았던 부분이 없었던 것 같다. 몇가지 인상깊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리더십에 관해 말한 부분이었다. 드러커는 리더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리더십은 소위 말하는 리더적인 기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카리스마와는 더욱더 관계가 없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하고 싫증나는 것이다.’라고 서술하며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 또한 아니라고 말한다.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이해하며 끌어당기고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하지만 드러커가 설명하는 리더십에서는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해 기준을 세워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 책에서는 일의 철학을 여러 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자주 언급되었던 단어가 강점 그리고 성과였다. 리더십에도 어김없이 이 단어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상사는 부하의 약점을 따지는게 무책임하며 부하의 강점을 살려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어려서부터 리더십이 큰 화제로 올라오면서 선생님들은 항상 리더십의 중요성을 배우고 리더십이 뭔지 가르쳐주려고 시도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배워왔던 리더십은 그냥 막연히 사람들을 지휘하는 능력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게 한다. 드러커는 이 리더십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자질을 말한다. 성공적인 프로는 무뚝뚝하거나 교제도 그리 좋지 못한 상사가 되더라도 성실함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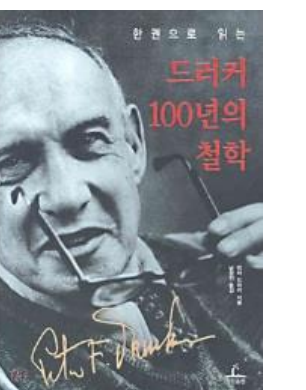
소위 계속 들어왔던 사람과 어울리는 리더와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생각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리더는 사실 이론에서 존재하는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얘기해 볼 것은 시간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 고민이 많았던 내게 좋은 tip을 남겨주었다. 사실 나는 과제를 하던가 일을 함에 있어서 쓸데없는 완벽주의를 기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하는 일이 많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으니 시간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는 드러커의 시간관리 방법들은 흥미롭게 다가왔다. 그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처리에 관해 체계적이며 철저하게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엇에 시간을 빼앗기는 지를 찾는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3~4주일간 계속적으로 실제 시간의 사용 기록을 남긴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은 즉각 그만두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방법이지만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나는 항상 일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 장기적으로도 이런 시간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비록 이 방법이 조직에서 일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한번 시도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관리의 마지막은 재미있는 명제로 끝을 내린다. ‘자신의 시간을 알라’.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같이 경영학 수업을 들으며 재미없다고 말했던 같은 조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나와 같이 그들에게 경영에 대해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초점을 제공해 줄 지도 모른다.



도서명 : (한권으로 읽는) 드러커 100년의 철학
저자 : 피터 드러커 / 남상진 (역)
출판사항 : 청림출판, 2004
도서관 청구기호 : [HD31.D776 .D78 2004](#)



“법륜 스님의 행복” 을 읽고 김민주, 화학과

서평공모전
입선

이 책을 선정한 이유

요즘 들어 행복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자주 갖는다. 하루 하루가 힘들고, 지치기 때문이다. 바쁘게 살다가 피곤에 찔러 침대에 눕고, 아침에 겨우 눈을 떠 수업을 가는 것이 일상이다. 이러한 삶의 가운데서 나는 어디서 내 행복을 찾아야 하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이 책을 선정하였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

그러니 이제 그만 허위의식의 감옥에서 벗어나세요.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며 각오하고 다짐할 게 아니라 후회하는 나, 질책하는 나가 사실은 허위의식에서 비롯됨을 알아차리는 게 그 시작입니다. -34 페이지

먼저 화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내 마음속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지요. -65 페이지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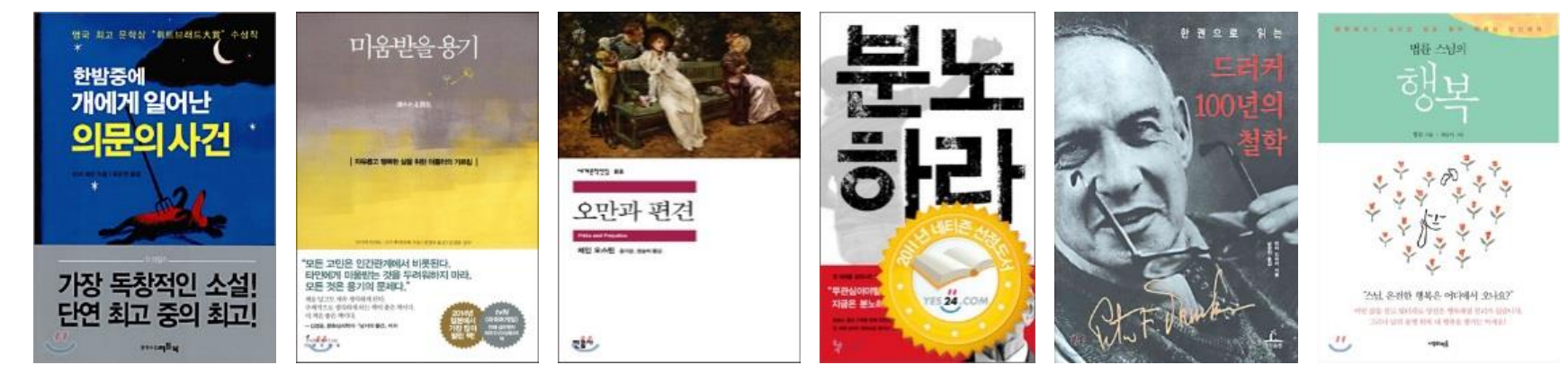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마라. -185페이지

서 평

인간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왜 사는가?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등, 모두들 ‘행복’을 향한 길일 것이다. 나 또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미래에 잘 살 수 있을지 항상 궁리하고 계산한다. 돈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좇아 가라는 말은 허황된 이상과도 같다 여겼다. 아직 인생의 반도 살지 않았지만, 그 짧은 나날들 가운데서도 돈 때문에 불행했던 적이 정말 많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며 시간이 날 때면 어디로든 여행을 떠나고, 사고 싶은 것은 다 사는 그런 삶.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로 ‘돈 많은 백수’가 제일 부럽다고들 이야기했다. 최근 들어 가장 유행하는 말은 ‘금수저’와 ‘흙수저’이다. 부모님의 재산으로 판가를 나는 수저의 질은 현실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부모님의 가슴에 생채기를 낸다. 돈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의식이 있기에 소위 말하는 흙수저들은 금수저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산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불안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미래에 행복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지만, 그 어떤 것도 성에 차지 않았다.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위험 부담이 큰 일은 하고 싶지 않았고, 안정적인 일을 꿈꾸자니 수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도대체 10년, 20년 후의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 현재의 나를 돌아볼 틈이 없었다. 미래에 후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는 생각이 불쑥 들곤 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달려가곤 있지만 정작 현재의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선 욕심을 버려야 했다. 진부하다고만 생각했던 말이지만 그 말이 정답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허위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의 시선에 얽매어있었고, 그러면서도 남을 제대로 바라볼 줄 몰랐다. 나는 그냥 나다. 예쁘거나 똑똑하거나 대단해야만 하는 나가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다. 남의 기준에 맞춰 예뻐지고 싶고, 대단해 보이고 싶기 때문에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스스로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춰지지 않는 자신을 보며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꼈다. 내가 지쳤던 이유는 몸이 힘들다고, 좀 쉬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와중에도, 공부하는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며 자꾸 나 자신을 한심하게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경쟁의식에 억지로 책상에 앉아 공부하려고 하니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었고, 그로 인해 또다시 자괴감에 빠졌던 것이다. 이제는 그 모든 욕심과 비교를 멈추기로 했다. 대신 스스로의 ‘원’을 설정하기로 했다. 무한경쟁사회에서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남에게 끌려 다니는 삶은 곧 내가 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로 했다. 나의 ‘원’을 설정하되, 이때의 ‘원’은 단순한 목표와 달라서, 내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좌절하는 것 따위가 아니다. 마음 속에 품은 진정한 바램이며, 나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노력하고 이루어내는 것이지 목표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그 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쓸모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면 노력할 것이고, 당장 닿지 않는다고 하여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얼마 전 전공시험을 쳤다. 평소 같았으면 남의 점수가 몇 점인지, 내가 얼마나 남에 비해 잘 했는지를 알고 싶어 전전긍긍 했을 테고, 내가 조금이라도 못 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한없이 좌절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을 달리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나의 업보에 의한 것이고 전혀 남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남과 비교하기보단 스스로의 기준에 맞춰 결과를 바라보고, 나의 ‘원’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시험 점수에 대한 내 마음도 평이했고, 오히려 남은 시험에 대한 준비를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남들과의 비교와, 시험 점수 그 자체에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관점을 바꾸니 ‘내’가 행복해졌다. 나는 현재를 살아간다. 지금 살아가는 현재에 충실해야 하고, 지금 현재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미래가 행복해질까 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그 누구도 나의 미래를, 남의 미래를 알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해서 진짜 삶이 그렇게 살아지는 것도 아니다. 걱정의 80%는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그 걱정을 모두 미뤄두고 미래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탕자탕자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나 자신에 붙잡혀있지 말자. 언젠간 이루고픈 ‘원’은 생각해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되 미래에만 사로잡히진 말자. 지금의 나를 좀 더 보살피자. 지금의 행복을, 좀 더 추구하자. 나중에 커서 뭐하지 하는 고민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주객전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민을 통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아나가야지 미래의 내 모습을 설정해두고 맞춰 나가지 말아야 한다. 이제부터 진로고민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어떤 직업을 택해서 얼마큼 돈을 벌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기로. 직업의 안정성이나 재산은 그 때 가서 생각하기로! 행복해지자.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단지 스스로가 찾으려 하지 않을 뿐이다. 불행하다고 느낄 때면, 고개를 조금 돌려 나를 기다리고 있을 행복에게 손을 내밀자.



도서명 : 법륜 스님의 행복
저자 : 법륜
출판사항 : 나무의마음:문학동네, 2016
도서관 청구기호 : BF575.H27 .법296 2016

